

南冥 曹植의 家族觀과 公共性的 아포리아

박충환*

- I. 서론
- II. 남명의 가족관과 조선중기 가족의 특성
- III. 修己治人と 개인-가족-국가 연속체
- IV. 가족과 공공성의 아포리아
- V. 결론에 대신해서

국문초록

이 논문은 南冥 曹植의 가족관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조명하는 연구이다. 그동안 학계는 남명의 가족관은 물론이고, 그것이 그의 학문사상 및 정치적 실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먼저 남명 조식의 가족적 삶과 가족관을 조선중기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포착한다. 그 다음 남명의 가족관과 그의 사상적·정치적 삶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과 그것이 갖는 현재적 함의를 ‘가족과 공공성의 아포리아’라는 문제를 속에서 조명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남명의 가족관은 고려시대 양변적 방계확대가족 문화의 잔재와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제가족 문화가 혼재하는 조선중기 사회의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 parkhanam@knu.ac.kr

성격을 보여준다. 둘째, 修己治人으로 압축되는 남명의 정치사상에서 가족의 편협한 이해와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공공성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 길항 관계가 논리적으로 해소되는 개인-가족-국가 연속체가 도출되고, 이를 통해 일종의 ‘총체적 공공성’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셋째, 남명의 정치사상은 修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리고 인류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가족과 공공성의 난제에 대한 이론적 무관심으로 인해, 현실정치의 장에 적용되어 개혁적인 힘을 발휘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남명의 정치사상과 서구의 정치사상을 심도 있게 비교분석해 보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제언, 그리고 이러한 지적 탐구가 가족과 국가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를 예고하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의미심장한 지적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끝을 맺는다.

◆ 주제어

남명, 가족, 수기치인, 개인-가족-국가 연속체, 공공성, 아포리아

I. 서론

南冥 曹植은 退溪 李滉과 더불어 조선중기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서 사변적 성리학의 이론적 심화를 추구했던 이황과 달리 성리학의 실천성과 知行合一을 강조하고 그것을 몸소 행동으로 옮겼던 대학자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조선중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양반층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당시 사회의 특징적인 가족문화 내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다 간 한 인간이기도 하다. 남명이 양반층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경험한 가족적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한 가족정서와 가족관은 단순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수준을 넘어, 修己治人으로 압축되는 그의 학문세계와 사상 그리고 성리학적 이상사회의 구현을 위한 후진양성과 정치적 실천에 의미심장한 함의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남명은 평생에 걸친 학문적 활동과 정치적 실천 과정에서 사회조직과 인간관계의 근본원리를 담고 있는 가족관계와 가족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 마찬가지로 학계 또한 남명의 가족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것이 그의 학문사상 및 정치적 실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남명의 사상과 정치적 실천을 가족이라는 주제와 연관시켜 조명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남명의 가족관계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서술적인 논의도 윤호진 교수가 『남명의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한 장²⁾을 할애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과편적이거나 일화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남명 조식의 가족적 삶과 가족관을 조선중기의 역사

-
- 1) 가족에 대한 남명의 학문적 무관심은 그가 남긴 『學記類編』에서 ‘齊家’와 관련된 내용이 다른 주제에 비해 매우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조식(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2003), 『학기유편, 사람의 길 배움의 길』, 서울: 한길사. 326-328쪽.
 - 2) 윤호진(2006), 『남명의 인간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11-40쪽; 윤호진(2012), 「남명의 생애와 발자취에 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남명학연구』 35집: 27-59.

적·사회적 맥락에서 포착하고, 남명의 가족관(혹은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그의 經世政治論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그것이 갖는 현재적 함의를 ‘가족과 公共性的의 아포리아’라는 문제를 속에서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은 그 구성의 원리, 구조, 기능, 규모가 지극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의 원형이자 사회적 삶의 기본단위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관찰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제도이다.³⁾ 다시 말해 가족은 그것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조차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인류의 사회적 삶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⁴⁾ 인간적 삶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을 관통하는 실천과 담론의 체계를 생산양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및 그와 연동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실천과 담론의 체계를 재생산양식이라 한다. 가족은 바로 이 경제적 생산양식과 생물학적 재생산양식이 역동적으로 교차하면서 사회를 아래로부터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 전형적인 ‘1차 집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가족은 이렇게 사회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본질적인 내적 응집력과 배타적 속성으로 인해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는 분산적 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 Marshal Sahlins는 가족에 내재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가족의 분산적 원심력과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공적 구심력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균형을 통해 사회가 가능해지고 또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政治體의 권력자들 그리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고 모색하는 정치사상가와 실천가들에게 가족(그것이 그리스 시대 오이코스 oikos⁶⁾의 형태이든

3) Murdock, George P.(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Company.

4) Lambert, Arnaud F.(2015). *Anthrop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Sussman, Marvin B. and Suzanne K. Steinmetz (1987),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5) 살린스, 마셜(박충환 옮김, 2014), 『석기시대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282-329쪽.

6) Habermas, Jürgen(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3-4쪽; 아감벤, 조르조(2016), 『왕국과 영광』, 서울:

고대 중국의 원시적 가부장제가족⁷⁾이든 상관없이)의 분산적 원심력과 공공성, 즉 복수의 가족을 보다 광범위한 집단으로 결속시키는 사회적 구심력을 화해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난제로 작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명은 가족제도가 갖는 이와 같은 사회적·정치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리학자들이 예의 그러하듯 자신의 가족관계와 가족적 삶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가족의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인 학문적·사상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성리학의 이론적·실천적 쟁점을 논하는 말과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의 가족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또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 사회의 한 양반 가족 구성원으로서 남명의 삶과 경험은 희미하긴 하지만 그가 남긴 말과 글 그리고 행적 여기저기 투영되어 있고, 이는 남명의 가족정서와 가족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남명의 가족관을 포착하고 그 사상적·사회정치적 함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글, 행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파편적 흔적들을 꿰맞추고, 그것을 조선중기 사회의 가족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켜서 접근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비전공자가 남명 조식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을 토대로 수행한 매우 시론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따라서 남명의 가족관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해 개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몇 가지 가능한 이론적·실천적 질문을 던지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힌다.

II. 남명의 가족관과 조선중기 가족의 특성

남명은 承文院 判校 曹彦亨과 인천이씨 李菊의 딸 사이에서 3남 5녀 중

새물결. 65-136쪽.

7) 서양걸(윤재석 옮김, 2000), 『중국가족제도사』, 서울: 아카넷. 72-90쪽.

둘째 아들로 태어나 유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22세에 南平曹氏 忠順衛 曹琇의 딸과 성가한 후에는 한 가문의 사위이자 한 여성의 지아버로서 그리고 1남 2녀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다. 남명은 또한 당시 양반층 사이의 관행을 따라 恩津宋氏 宋璘의 딸을 소실로 맞아 그와의 사이에 서자 次石, 次磨, 次訂 3형제를 두었다. 남명은 이와 같이 당시 양반층의 기준으로 볼 때 크게 특이하다고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가족관계 내에서 생로병사의 생애 주기를 통과했다.

기록에 따르면 남명은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종일관 엄격했고, 가족적 인연에 대해 전반적으로 초연한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명이 단순히 가족에 대한 애착과 애정도 없는 냉철하고 메마른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남명은 가족과 가족적 삶에 대한 생각, 감정, 소회를 시와 墓誌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남기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가족애, 가족관, 가족정서 등이 의미심장하게 드러난다. 남명이 남긴 가족 관련 글과 말 중에서 그의 깊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요절한 아들을 애도하면서 쓴 추도시 「喪子」이다. 그는 1544년 6월 유일한 적장자였던 次山을 여의는 불운을 겪고, 그 비통한 심정을 한 편의 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
한평생 보내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여생을 돌아보니 머리 흰 눈처럼 어지럽도다.⁸⁾

이 시는 아들을 여윈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과 혈육에 대한 깊은 사랑을 압축적인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뜯어보면 이 시에는 남명의 가족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상황과 가족관을 엿볼 수 있는 중층적 함의가 숨겨져 있다. 특히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게 중과 비슷하고, 뿌

8) 남명학연구소(2001), 『남명집』, 서울: 한길사. 105쪽.

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라는 앞 두 행은 남명이 당시 자신의 가족과 가족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이 두 행은 크게 네 개의 언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남명은 스스로 집이 없다고 생각했다. 둘째, 아들을 여의었다. 셋째, 집과 아들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출가한 중과 같다. 넷째, 따라서 남명은 스스로를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은 신세라고 생각했다. 이들 언명을 문어적으로 재조합해보면 한 가장이 가계를 이어갈 유일한 아들을 잃어 가족의 대가 끊기게 되었고, 대가 끊김으로 인해 자신의 ‘집’, 즉 가족이 해체되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가계영속성이 단절된 가부장제가족의 가장인 자신의 처지를 “집도 없고 아들도 없는” 출가한 중에 비유하고, 집과 아들의 부재로 인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뿌리도 꼭지도 없는 이내 몸 구름 같도다”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들 시구의 내용과 은유적 장치는 남명이 가부장제 직계가족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평면적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집과 아들의 부재에 대한 남명의 비애와 탄식을 가부장제 직계가족을 항구적으로 재생산해야 한다는 그의 책임감,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면적이고 문어적인 해석은 부분적으로 오독일 가능성이 높다. 남명이 살았던 조선중기 사회는 아직 가부장제 직계가족과 유교적 가족규범이 심지어 양반층 사이에서도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가족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⁹⁾

조선시대의 ‘전통가족’에 대한 현재의 대중적 이미지는 유교적 가부장제 가족과 부계 직계가족이라는 이념형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역사적 증거들은 이렇게 가부장제가족과 유교적 가족규범을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가족형태와 이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9) 박미혜(2003),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이이효재(2003), 『조선 조사회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문화』, 서울: 한울; 최재석(1993), 「조선중기 가족, 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집.

“일종의 착시”¹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선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가부장제 직계가족은 양반층 일부에서만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매우 제한적인 현상이었고, 조선중기로 접어들어서야 지배층에서 하나의 이상적인 가족형태와 규범으로서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¹¹⁾ 가부장제 직계가족과 부계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가족규범이 양반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일반적이고 이념형적인 가족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은 17세기 이후 “전통적 신분질서가 해체되고 상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대중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양반·상민 지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가족규범이 사회적으로 학습되기 시작”¹²⁾하면서부터였다. 남명의 가족적 삶과 가족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적 가부장제가족과 부계 직계가족이라는 현재의 의식·무의식적 프레임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가족사의 맥락에서 볼 때 남명이 살았던 조선중기 사회의 가족은 한마디로 옛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하는 가족문화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전기에서 중기를 거쳐 후기로 이어지는 가족문화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형태와 혼인거주규정 측면에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온 壻留婦家婚이 서류부가 기간의 점진적인 단축과 함께 그 빈도가 감소하고, 조선후기에 접어들면 혼례과정에서 의례적·상징적인 혼적으로만 남게 된다. 둘째, 지배층의 가족유형이 일부다처제 가족에서 축첩을 용인하는 일부일처제 가족으로 전환된다. 셋째, 고려시대에 지배적이었던 양변적 방계가족의 특성이 서류부가혼의 쇠퇴와 함께 희미해지고, 조선중기의 과도기를 거쳐 조선후기에 이르게 되면 가부장제 직계가족이 지배적인 형태로 자리매김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중기 이후 가부장제 직계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부상하면서 가산상속 유형 또한 균분상속에서 장자우선상속으로

10) 안호용(2012), 「조선시대 가족구조 변동의 기준과 가족사의 시대구분」, 『한국사회』 13집 2호, 53쪽.

11) 이이효재 앞의 책; 최재석 앞의 글.

12)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102쪽; 최흥기(2006),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전통과 현대의 변화』, 서울대 학교출판부.

전환된다.¹³⁾

따라서 조선중기는 한편으로 고려시대 가족문화의 잔재, 즉 출계원리상 양면적 성격이 강한 서류부가혼 방계가족 문화가 대중들의 삶과 관념 속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의 개국 이후 가부장제가족과 유교적 가족규범이 양반층 사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와 이념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남명의 가족관과 가족정서를 규정했던 조선중기 사회는 가족형태, 가족가치, 혼인형태, 혼인거주율, 상속, 가족관계와 그 정서적 차원 등에서 양면적 방계가족 문화와 유교적 가부장제가족 문화가 뒤섞여 있는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중기 가족문화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과도기적 상황은 남명이 김해로 낙향한 후 그의 모가 사둔집인 남명의 처가에서 일종의 더부살이를 하면서 여생을 보낸 사실¹⁴⁾을 이해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맥락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종류의 가족문화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은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역사적인 ‘타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종의 ‘역사적 문화상대주의’를 통해 당시 사회를 마치 타문화처럼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 「喪子」를 당시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프레임을 통해 다시 읽으면, 남명의 가족관과 가족정서가 가부장제 직계가족의 제도적·이념적 프레임에 간혀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오히려 그의 가족관과 가족정서는 당시 두 종류의 가족문화가 혼재하는 사회적 상황을 통해 의미심장하게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시를 성리학자이면서도 도교와 불교적 가치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남명의 사상적 지향으로 인해 가족과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애착과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가족의 편협한 경계를 넘어선 영역에서 출가한 중 혹은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3) 안호용 앞의 글, 48쪽; 이이효재 앞의 책, 최재석 앞의 글.

14) 이상필(2007), 『남명의 삶과 그 자취1』, 서울: 경인문화사. 90쪽

남명의 가족관과 가족적 삶이 가부장제 직계가족의 프레임에만 갇혀 있지 않고 고려시대 가족문화의 유산인 양면적 방계확대가족 문화에 의미심장하게 착근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그의 행적과 글 곳곳에서 드러난다. 남명은 己卯土禍로 인해 숙부 조언경이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조언형도 파직되어 이내 세상을 떠나자 낙향 후 어머니를 모시고 처가가 있는 김해 탄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여기서 남명은 처가의 도움으로 山海亭을 짓고 약 15년 동안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학문과 후진양성에 열중하게 된다.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목숨처럼 중요시했던 남명이 이렇게 처가의 경제적 도움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장시간 생계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부계 혈통과 이해관계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유교적 가부장제가족의 편협한 가치 프레임을 강력하게 내면화하고 실천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남명은 양면적 방계확대가족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프레임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조식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던 가족은 아버지 조언형의 내외 자손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조카는 물론 생질과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으로 품어서 훈육”¹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양면적 방계확대가족의 프레임은 특히 남명이 아들 차산을 잃은 뒤 생질인 이준민에게 보여준 애정과 관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명이 유교적 부계 직계가족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가족을 바라보았다면 ‘출가외인’이었던 누이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기대와 애정을 보여주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명의 가족적 삶과 가족관을 관통하고 있는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편으로 남명은 성리학자로서 유교의 남성중심주의적 가치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남명은 “항상 거처할 때는, 처자와 섞여 있어서는 마땅하지 않다. 비록 자질이 아름답더라도 곧 따라 빠져버려, 끝내 인간이 되지 않으리라”¹⁶⁾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크

15) 김학수(2017), 「덕천서원, 경의학으로 디자인한 조선의 인문공간: 남명과 경의학의 자취」, 『2017년 남명학연구소 학술대회: 남명학의 학술문화공간, 덕천서원』남명학연구소, 153쪽

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남명의 도학자적 엄숙주의와 금욕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전형적으로 여성을 폄하하는 남성중심주의적 태도로 읽힐 수 있다. 남명의 이와 같은 유교적 남성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임종을 맞았을 때 소실이었던 송씨 부인이 마지막 인사를 청하자 이를 거절한 일화이다. 남명이 죽음을 앞두고서도 여성과의 정리에 얽매이지 않는 권위적 가부장의 모습을 지키고자했던 이유는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죽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다”는 유교 경전 『禮記』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하지만 동시에 남명은 가족과 가문 내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여러 墓誌에 실린 문장을 통해서 드러낸다. 한 예로 정부인 최씨 묘표를 들 수 있다.

… 당하에서 부인을 뵈는 적이 있었는데, 그 훌륭함을 보고서야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면서도 공경스러운 것은 제사를 받들고 남편을 받드는 거동이었고, 온화하면서도 엄격한 것은 비첩을 어루만져주고 자녀를 가르치는 법이었다. 동지공이 나라를 걱정하며 집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평생토록 집을 돌보지 않았으나, 부인이 인으로 집안일을 넉넉히 다스리고 전택을 잘 경영하여, 엄연히 법도가 있는 한 가문을 이루었다. 동지공이 매양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얻었으니, 집안 식구들의 생계는 전혀 마음 쓰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부인이 어찌 힘써 공부한 적이 있어 그로써 수신제가한 사람이겠는가? 단지 아름다운 자질을 타고난 것이 많아,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¹⁸⁾

이 묘표에서도 남명은 “부인이 어찌 힘써 공부한 적이 있어 그로써 수신제가한 사람이겠는가?”라는 수사의문을 통해 여성은 기본적으로 수신제가를

16) 曹植, 『南冥集』附錄『南冥先生言行總錄』. 윤호진 앞의 책 28쪽에서 재인용.

17) 이성무(2001), 「시들지 않는 사상의 꽃 ‘퇴계와 남명」, 『주간동아』 272호.

18) 『남명집』 297쪽.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남성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남명은 동지공의 예를 들어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성원들을 다스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일종의 당위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가내외적으로 보다 활발하고 주체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 서류부가혼 가족 문화¹⁹⁾의 프레임이 여전히 남명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있었음을 추정 가능하게 해준다.

이상을 통해 남명이 가족에 관한 글과 시를 남길 때 그의 가족관과 가족정서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교적 가부장제가족의 문화적 프레임만이 아니라 양면적 방계확대가족과 가부장제 직계가족 문화의 혼용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남명의 가족관은 시 「상자」의 분석에서 논의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통치원리이자 지배층의 이념이었던 유교적 가족윤리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양면적 방계확대가족 문화의 실질적 영향력이 동시에 그의 일상적 삶과 행적 그리고 가족적 정서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명의 가족관과 가족정서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남명이 가족관계와 가족적 인연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해 남명이 보여준 초연하고 탈속적인 태도는 기묘사화의 여파로 숙부와 아버지를 잃고, 하나뿐인 아들을 일찍 여의는 등의 불운 겪으며 불교적 허무와 무상을 느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명의 가족에 대한 초연한 태도는 또한 그의 敬義學과 出處論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실천행위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그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사상적 지향으로 인해 공적 수준에서의 도 혹은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편협한 물질적 이해관계와 정서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성리학적 滅私奉公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

19) 권순형(2001),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國史館論叢』 제95집, 185-208쪽.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멸사봉공의 태도와 가치는 남명이 쓴 부친의 묘갈명인 「先考通訓大夫承文院判校墓碣銘」에서 부친을 평가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벼슬살이를 20년 동안 하였지만 돌아가셨을 때 예를 갖추 수가 없고, 집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 자손들에게 남겨준 것은 분수에 만족하라는 것뿐이었다. 두 임금을 내리 섬기면서 특히 수고하고 힘썼지만 품계는 삼품에 지나지 않았으니, 그가 세상에 구차하게 아첨하여 영화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높은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조정의 고관들이 공에게 의지해서 하루라도 공이 없으면 안될 정도였으니, 한 시대에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²⁰⁾

이와 같이 남명은 가족과 가족관계의 편협한 이해를 초월한 영역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공적 이상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 도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따라서 남명은 가족을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물질적 생존과 생식 그리고 정서적 만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자신의 학문적 이상과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초월해야할 영역으로 간주했음에 분명하다. 이는 남명의 출처론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사상으로서 『學記類編』에 옮겨놓은 구산 양씨의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구산 양씨가 말하였다. “도를 실현하기 위해 벼슬하는 것과 녹봉을 타기 위해 출사하는 것은 다르다. 상이보는 집안이 가난했는데, 부름을 받아 조정에 들어가자 신종이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자 그로 하여금 등문고(신문고)와 염원(건물을 칠하는 것) 같은 몇 개의 부서를 겸하게 하였다. 봉급이 거의 그의 집안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보는 받는 것을 일절 사양하지 않았다. 정숙은 백의로서 권강관(勸講官)으로 발탁되었지만 고사하였다. 대개 전날에 벼슬하지 않은 것은 도리 때문이었고 금일 벼슬한 것은 모름지기 그 벼슬이 도리를 행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차하게

20) 『남명집』 268-269쪽.

녹봉만을 받아먹는 것일 뿐이다. 후세에 도학이 밝지 못하여 군자의 사양하고 받는 것과, 취하고 버리는 것 등을 알 수 있는 자가 드물다. 그러므로 상공(이보)이 사양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그르다고 하지 않았고, 정공(정자)이 사양한 것 또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²¹⁾

남명이 『학기』에 구산 양씨의 말을 옮겨 적으며 가슴 속에 새기고자 한 뜻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녹을 받아 가족의 물질적 이해에 봉사할 목적으로 출사하지는 말아야 하고, 오직 도의 실천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출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남명은 공공선의 실현과 도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출사를 위해 가족의 사적 이해를 포기하고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평생 동안 실천으로 옮기며 가난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남명은 한편으로 성리학자로서 유교적 가부장제가족의 제도와 이념을 통해 가족적 삶을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면적 방계확대가족의 문화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가족관과 가족정서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에서 남명의 가족적 삶과 가족관을 관통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이념적 이중성과 양가성을 자신의 학문적 사상 및 실천과 어떻게 화해시켰고, 또 그것을 위해 어떤 지적 고민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정치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Ⅲ. 修己治人과 개인-가족-국가 연속체

남명이 전개했던 학문세계와 사상적 실천 대부분은 修己治人の 정치론으로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명의 수기치인론은 敬意를 다해 수양

21) 『학기유편』 342-343쪽; 변창구(2013),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출처관-현대 지식인에 주는 교훈」, 『민족사상』 제7권 2호. 222쪽.

에 임하고 도를 통해 經世濟民함으로써 성리학의 이상적 공동체, 즉 大同世上을 현실에 구현해야 한다는 유교 정치사상을 조선중기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주한 것이다.²²⁾ 남명은 자의든 타의든 적극적인 출처를 통해 경세제민에 나서지 않았고, 거의 평생을 재야에 머물면서 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乙卯辭職疏」와 「戊辰封事」 등 上疏를 통해 목숨을 걸고 행했던 바 처럼 당대의 잘못된 정권과 정치에 신랄하고 주저 없이 비판했고,²³⁾ 다른 한편으로 후세를 위한 공적 교육에도 힘씀으로써 수기치인의 정치사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썼다. 남명의 학문세계를 관통하는 이러한 수양적 경의사상과 실천적 경세사상은 물론 유교 정치사상의 정수인 『大學』에서 연원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은 三綱領(明明德, 新民, 止於至善)과 八條目(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으로 구성된다. 팔조목은 삼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실천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의 논리는 먼저 자연의 이치에 대한 통찰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삶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이에 입각한 수양과 실천의 도를 가족, 국가, 세계에 대한 통치로 확장시켜나가는 형태로 전개된다. 즉 『대학』은 수신을 통해 제가하고 제가의 원리가 확장되어 치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평천하, 즉 성리학의 이상적 공동체가 실현된다는 정치적 논리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²⁴⁾

여기서 한편으로 수신은 주체이자 대상인 개인의 몸과 정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치인 혹은 安人의 대상인 가족과 국가는 각기 다른 원리와 법칙을 통해 작동하는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라 수신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와 윤리적 규범이 전 수준을 관통하면서 하나의 논리적인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²⁵⁾ 따라서 “수기의 내적 실천이란 주체 내부의 지평을 넓혀가는 도덕적

22) 소진형(2015), 「『대학』의 평천하 개념과 성리학적 정치공동체의 기초」, 『한국정치연구』24집 1호.

23) 김기주(2010), 「남명 조식의 사회변혁론 : 「무진봉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제29집.

24) 소진형 앞의 글, 2쪽.

25) 엄연석(2012), 「남명의 『학기유편』에서 자연과 도덕의 일관성 문제」, 『남명학』 17집.

인격의 완성과정이고, 안인의 외적 실천이란 그렇게 완성된 도덕적 인격의 사회적 확산 과정인 동시에 사회를 변혁해 가는 과정”²⁶⁾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논리상으로 수기와 치인은 ‘단계적·연속적’ 개념이지만 현실정치의 세계에서는 ‘동시적·병행적’ 개념이기 때문에 수기를 중시하느냐 치인을 중시하느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생길 수”²⁷⁾ 있고, 이와 같은 현실 정치에서의 입장 차이는 계급적 이해와 밀접하게 맞물리기도 한다.²⁸⁾

『대학』의 정치론이 갖는 특성 중 하나는 서구 정치사상의 열쇠 개념인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명확한 구분, 즉 공-사 이분법²⁹⁾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수기치인은 유교정치학의 핵심 명제로서 개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와 그것을 초월한 공공의 이해 혹은 공공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영역 사이에 일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전제한다. 남명 조식은 이러한 유교정치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수신, 즉 사욕을 초월하고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개인의 수양과 실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수신, 도덕성과 실천성이 사회의 전 수준에서 반복되면서 카오스 이론의 “프랙털 구조”(fractal structure)³⁰⁾와 유사한 ‘개인-가족-국가(사회) 연속체’가 구축된다.

26) 김기주 앞의 글.

27) 박병련(1997), 「남명 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위치」, 『정신문화연구』 제20집 3호, 162쪽.

28) 박병련, 앞의 글, 163-164.

29) Habermas 앞의 책; 아렌트, 한나(이진우, 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30) 위상수학과 카오스 이론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물질세계에서 부분과 전체 그리고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이 자기유사성의 반복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를 개념화한 것인데, 이 개념은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삶의 영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제임스 글릭(2013)의 책 『카오스: 새로운 과학의 출현』 참조.



<그림 1> 개인-가족-국가 연속체

남명의 경세정치론을 관통하는 개인-가족-국가 연속체는 명확한 공-사 이분법에 입각해 있는 서구 정치학과 매우 다른 형태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³¹⁾ 즉 남명의 정치사상에서는 서구의 정치사상과 달리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일종의 프랙털 구조로 연결되어 두 영역 사이의 적대적 긴장관계가 논리적으로나마 해소되어 버린다. 아마 바로 이러한 논리적 귀결 때문에 남명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리학자들이 수기치인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사회정치적 중요성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간과해버리는 경향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공-사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길항관계의 논리적 해소를 과잉해석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명의 정치사상으로부터 일종의 ‘總體的 公共性’, 즉 수양한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익이 곧 공익이 되고 공익이 곧 사익이 되는 이상적 사회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³²⁾

31) Habermas 앞의 책; 아렌트 앞의 책.

32) 물론 공공성의 이와 같은 프랙털 구조 내에서 자기유사성의 형태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수신, 즉 자기수양을 통한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다.

남명 정치사상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총체적 공공성은 개인적 욕망과 사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시장의 법칙을 통해 조율되면서 사회적 공공성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는 당대 서구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프레임³³⁾과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 남명의 수신하는 인간이 금욕적이고 이타적 인간인 반면 자유주의 시장의 ‘경제인’(homo economicus)은 쾌락의 무한한 충족을 욕망하는 이기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이들 두 정치사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공공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중기 실천 유학의 대표 사상가인 남명 조식의 경제정치론에서 발견되는 개인-가족-국가 연속체와 실천적 수신론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구 공공성 담론과 대의민주주의의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적 상상력을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남명의 경제정치론은 그 긍정적 가능성 내에 본질적인 한계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수신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함의에 대한 무관심이다.³⁴⁾ 『대학』의 정치론뿐만 아니라 남명의 경제정치론을 관통하는 개인-가족-국가 연속체의 출발점은 바로 개인의 수양, 즉 수신이다. 따라서 고금을 막론하고 유학의 정치론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주로 성리학적 공동체의 출발점이자 기초로 인식되는 수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그 대책점에 있는 치인 혹은 치국에 맞추어져 있다.³⁵⁾ 결과적으로 이 연속체의 중간 지점에 가족이 위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회학적’ 사실이 간과되어버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족이 경제정치 연속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정치적·이념적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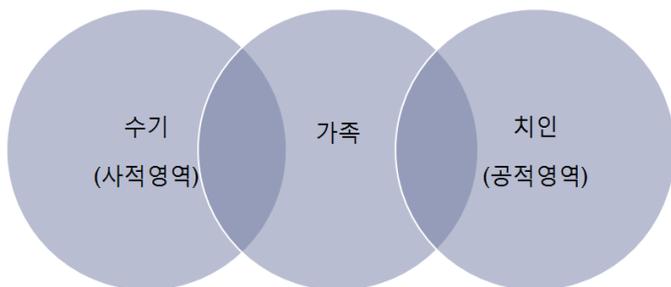
33) 아감벤 앞의 책; 아렌트 앞의 책 참조.

34) 퇴계 이황이 수기의 차원을 중시하고 치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경제적 실천을 강조한 남명은 상대적으로 치인의 맥락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남명의 정치사상에서 수기적 맥락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35) 박병련 앞의 글.

는 것이다.

사변적 이론이 아닌 경험적 현실에 비추어볼 때, 성리학적 공동체의 척추인 개인-가족-국가 연속체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가족은 수신하는 개인과 국가를 분명하게 매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과 국가의 공적 영역, 즉 공공성이 아래위 그리고 위아래 쌍방향적으로 교차하는 매개지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림 2>를 보라). 다시 말해 개인의 사적영역이 가족을 매개로 국가에 미치고 국가의 공적영역이 가족을 매개로 개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개인과 국가(사회)의 매개체로서 가족의 중요성은 고대 중국에서 가부장의 권위와 가내적 위계질서, 가족의 운명공동체적 이념과 가치관, 조상과 하늘의 일치, 조상 제사 등을 관통하는 윤리가 그대로 종족·씨족 공동체, 즉 사회의 수준으로 확장되고 이것이 다시 국가 수준의 통치기제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고도의 윤리체계로 발달한 三綱五倫에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³⁶⁾



<그림 2> 수기와 치인의 매개체로서의 가족

36) 서양길 앞의 책; 윤재석(2001), 「중국 고대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중국사연구』 제13집.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 가족관계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윤리규범이 유교 정치론에서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가족이 수기치인의 역동적인 매개지점으로 기능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정치론을 조선중기 사회의 맥락에서 심화시킨 남명의 정치사상에서도 가족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남명 스스로도 가족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함의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계 또한 경세정치론의 기초로 인식되는 개인의 마음과 몸에 대한 수양, 즉 수신(修身)의 문제에만 주로 천착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준다. 가족이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갖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대학의 정치론과 남명 정치사상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³⁷⁾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남명이 이에 대해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아이러니이다. 이 지점에서 어찌하면 가족에 대한 바로 이와 같은 학문적 무관심으로 인해 남명의 실천적 경세정치론이 단지 사상에 머물고 진정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으로 확장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지나친 억측만은 아닐 것이다.

IV. 가족과 공공성의 아포리아

남명 경세정치론에 내재하는 가족에 대한 무관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의 사회적 삶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작동원리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족은 그 내적 공유관계로 인해,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한 인간이 개인적 욕망의 이기적 추구를 지양하고,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호혜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장을 제공한다. 더욱이 가족성원들의 가내적 상호작용을 관통하는 ‘互惠性’(reciprocity)이 가족집단의 경계를 초월한 수준까지 확장

37) 남명은 어떤 이유로 인해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될 때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족은 인류의 사회적 삶의 토대이자 원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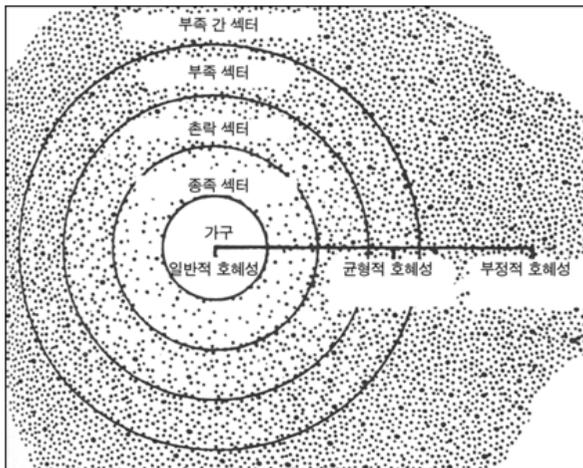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그 범위를 초월한 공동체의 수준에서 볼 때 반사회적이고 분열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정한 상황, 특히 물질적 결핍이나 사회적 위기가 일반화되는 시기에, 가족을 초월한 사회적 수준에서 작동하던 호혜성의 범위가 축소되면서 가족 집단의 폐쇄적인 영역으로 갇혀버리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집단은 사회적 삶의 원형으로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가족을 초월한 수준의 사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성을 그 본질적 성격으로 가지게 된다. 지구상에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수많은 문화집단들을 비교연구해온 인류학자들은 가족이 그 역사적·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기주의와 공적 이타주의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장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민족지 사례들을 통해 보고해왔다.³⁸⁾

가족의 편협한 이해와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공적 이해, 즉 공공성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내재적 모순과 길항관계는 초창기 인류 사회집단인 수렵채집사회와 원시농경사회에서 원형적으로 관찰된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호혜성과 친족거리”(혹은 사회적 거리)라는 개념 하에서 설득력 있게 조명하고 있다. 살린스는 호혜성을 분석적으로 세 가지 유형, 즉 “일반적 호혜성”, “균형적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으로 구분한다.³⁹⁾ 일반적 호혜성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종류와 양 혹은 가치를 계산하거나 정해진 시점에 등량등가로 되갚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호혜성이다. 대조적으로 균형적 호혜성은 물자와 용역을 제공할 때 특정한 시점에 등량등가로 되갚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호혜성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의지가 작동하는 엄밀하게 호혜성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로 시장에서의 교환관계를 규정하는 원리이다.

38) 살린스 앞의 책 267-329, 387-446쪽.

39) 살린스 앞의 책 278-282쪽.

살린스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 호혜성은 친족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그에 상응하는 친밀한 사회관계의 맥락에서 작동하고, 균형적 호혜성은 범주적으로는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상당한 결속력을 가지는 가까운 친족 혹은 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부정적 호혜성은 먼 친족 그리고 범주적으로 외부인 혹은 이방인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해서 살린스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이 “가까운 친족일수록 일반적 호혜성 쪽으로 기울고 친족거리가 멀어질수록 부정적 호혜성 쪽으로 기울다”⁴⁰⁾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하는 당사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 호혜성이 작동하고,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균형적 호혜성을 거쳐 부정적 호혜성이 작동하는 현상을 원시 공동체의 내외적 관계에서 발견한다. 살린스는 이와 같은 민족지적 증거에 입각해서 원시 사회집단 내 가족의 원심력과 그것을 초월한 수준의 공공성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길항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림 3>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호혜성과 친족거리

40) 살린스 앞의 책, 282쪽.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의 명확한 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서구의 정치학은 가족집단을 사적이해가 작동하는 배타적인 장으로 보고, 공공성을 가족집단의 편협한 이해를 초월한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고 또 실현되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개념화한다. 가족집단의 외피를 경계로 설정되는 서구의 공-사 이분법은 그리스 시대의 가족(혹은 가구) 단위인 오이코스의 사적영역과 폴리스의 공적영역 이분법에 연원을 둔 것으로서, 정치적인 것, 즉 공적인 것을 폴리스의 영역에 한정시킴으로써 가족과 공공성의 난제를 풀어나간다.⁴¹⁾ 반면 유교 정치사상은 이러한 난제를 개인-가족-국가 연속체가 전제하는 가족윤리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소해버리고, 이러한 논리적 해소가 중앙집권적 전제국가라는 권력 하에서 고도로 추상화된 현실 윤리사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유교의 삼강오륜이라는 사실은 앞 절에서 이미 논의된 바이다.

이 지점에서 <그림 3>의 동심원을 <그림 1>의 개인-가족-국가 연속체를 구성하는 동심원과 겹쳐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남명의 경제정치론에서 수신을 통한 제가의 원리가 국가 수준에까지 확장되면서 공-사 영역의 길항관계가 해소되는 논리적 구도가 제시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논리적 수준의 해소로서 현실적 경험세계에서는 실현이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바로 살린스를 비롯한 많은 인류학자들이 논증하는 바와 같이 현실 세계의 가족과 공공성 사이에 실제적인 긴장과 길항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적 단위인 가족을 그것을 초월한 공동체 수준으로 결집시키는 사회의 공적 구심력과 가족적 이해의 편협한 원심력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난제가 동서를 막론하고 정치사상의 핵심 관건이 된다.

이타성과 배타성이 공존하는 가족의 내재적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

41) 아렌트 앞의 책; 아감벤 앞의 책; 홍기빈(2001),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서울: 책세상; Habermas 앞의 책.

구 정치학의 엄격한 공사이분법 그리고 유교정치학의 공사연속체 모두 비현실적인 사변적 이론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서구정치학과 유교정치학 공히 가장 핵심적인 난제 중 하나는 바로 가족과 공공성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길항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아무리 개인의 수신을 강조해도 가족의 물질적 이해와 가족적 인연에 대한 정서적 집착이 공익을 압도해버릴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명이 끊임없이 멸사봉공을 주장하고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가족, 문중, 사회, 국가 영역에서 공공선을 파괴하는 사적 이익의 추구, 즉 만연한 부패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⁴²⁾ 안타깝게도 그는 ‘사회학적 상상력’ 혹은 ‘인류학적 상상력’의 결핍으로 인해 당시 조선중기 사회를 초월해서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최근 정치학의 공공성 담론은 개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를 초월한 공적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공·사 이분법에 입각한 서구의 공공성 담론은 한편으로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제도적·법률적 구분을 통해 사적 이해가 공적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이념을 통해 공적 권력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작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권력과 자본의 밀접한 공모관계로 인해, 서구적 공·사 이분법은 원자화된 소비자와 자본주의 가족의 사적 욕망이 공화국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농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념적·실천적으로 열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한국인들이 목도해온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고, 이에 관한 지적 고민은 최근 국내외 지성계에 만연한 ‘민주주의의 죽음’에 관한 조서⁴³⁾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42) 김기주 앞의 글; 최인호(2001). 「남명 조식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유학연구』 11집.

43) 최근 민주주의의 죽음에 관한 지성계의 고민과 논쟁에 관해서는 아감벤 외(김상운, 양창렬, 홍철기 옮김, 2010)의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새로운 논쟁을 위하여』를 보라.

물론 여기서 가족과 공공성의 오래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적어도 남명 경제정치론과 서구정치학의 진지한 비교연구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제언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어쩌면 남명 경제정치론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수신론에 입각해서 가족-국가 그리고 사적영역-공적영역 이분법의 딜레마를 초월하는 ‘총체적 공공성’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 탐구는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부조리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개인과 가족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총체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의미심장한 지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에 대신해서

구글 검색화면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선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환한 미소의 두 부부 사이로 한두 명의 자녀가 행복한 포즈를 잡고 있는 낭만적인 핵가족의 모습, 그 화면에 손자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부부가 더해진 직계확대가족의 모습,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온화한 얼굴의 노부부를 의자에 앉히고 그 뒤로 혼인한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채 활짝 웃고 있는 방계확대가족의 이미지가 쏟아질 것이다. 이들 사진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가족을 연상할 때면 떠올리는 지배적인 이미지가 부부와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핵가족 혹은 확대가족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또한 한국인의 가족이념과 급변하는 가족의 현실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최근 전 지구적인 수준에서 가족의 급격한 해체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는 시청에서의 혼인서약을 통해 성립되는 전통적인 혼인가족, 간단한

서류로 공인만 받으면 가능한 ‘팍스’, 즉 비혼가족, 그리고 아무런 법적 절차가 필요 없이 함께 살기만 하면 성립되는 동거가족 등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가족이 병존하고 있고, 이들 모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북미 대륙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이 다자 대 다자간의 복잡한 연애관계를 축으로 형성, 진화, 해체될 수 있는 이른바 ‘폴리아모리(polyamory 가족)’의 실험실이 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유교 문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은 2017년 5월 2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과 동성애가족을 합법화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018년 1월 3일자 『경향신문』은 무려 네 쪽 분량의 지면을 할애해서 「생활동반자’…우리도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실고 있다.⁴⁴⁾ 이 기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비혼 일인 가구, 무자녀 부부가족,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가족까지, 전통적인 가족의 범주에 쉽게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정상성-비정상성의 축을 통해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가족프레임 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와 새로운 가족의 부상만으로도 대다수 가족전문가, 행정가,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설상가상으로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나노과학, 유전공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인류의 생물학적 재생산양식에서 전대미문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제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생산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잉여인간’이 대규모로 양산되고, 그들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가족관계에도 상상 이상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전망이 현

44) 이재덕 외(2008), 「생활동반자’…우리도 가족입니다」, 『경향신문』 22518호(2018년 1월 3일).

실화된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가족은 더 이상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재생산의 단위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다분하다.

이상에서 남명의 가족관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가족과 공공성의 난제라는 문제를 하에서 시론적으로 조명해보았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친족으로 확장되고 친족은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 국가로 확장되며, 국가는 지역사회로 지역사회는 친족으로 친족은 가족으로 분해되면서 인류사회가 재생산되어 왔다. 이러한 쌍방향의 운동은 오늘날 개별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수준의 힘들에 의해 더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족의 해체와 “위기의 국가”⁴⁵⁾를 전망하는 지구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이러한 확산과 수렴의 원심적·구심적 경계지점에 여전히 가족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시론적 연구를 통해 명확해진 사실은 가족이 보다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모색하는 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남명의 가족관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 이 연구가 최소한의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좁게는 남명의 가족관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에 대한, 그리고 넓게는 서구 정치학과 유교 정치학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비교론적 탐구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 탐구가 가족의 궁극적 해체를 애도하고 있는 디지털 포스트모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리는데 최소한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18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5) 바우만, 지그문트, 카를로 보르도니(안규남 옮김, 2014), 『위기의 국가: 우리가 목도한 국가 없는 시대를 말하다』, 서울: 동녘.

참고문헌

- 권순형(2001), 「고려의 가족제도와 여성의 생활」, 『國史館論叢』 제95집, 185-208쪽.
- 글릭, 제임스(2013), 『카오스: 새로운 과학의 출현』, 서울: 동아시아.
- 김기주(2010), 「남명 조식의 사회변혁론 : 「무진봉사」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제29집.
- 김학수(2017), 「덕천서원, 경의학으로 디자인한 조선의 인문공간: 남명과 경의학의 자취」, 『2017년 남명학연구소 학술대회: 남명학의 학술문화공간, 덕천서원』 남명학연구소.
- 남명학연구소(2001), 『남명집』, 서울: 한길사.
- 남명학연구원(2006), 『남명사상의 재조명』, 서울: 예문서원.
- 바우만, 지그문트, 카를로 보르도니(안규남 옮김, 2014), 『위기의 국가: 우리가 목도한 국가 없는 시대를 말하다』, 서울: 동녘.
- 박미혜(2003),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서울: 아카넷.
- 박병련(1997), 「남명 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위치」, 『정신문화연구』 제20집 3호: 157-179.
- 변창구(2013),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출처관-현대 지식인에 주는 교훈」, 『민족사상』 7(2): 214-236.
- 살린스, 마셜(박충환 옮김, 2014), 『석기시대 경제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서양걸(윤재석 옮김, 2000), 『중국가족제도사』, 서울: 아카넷.
- 소진형(2015), 「『대학』의 평천하 개념과 성리학적 정치공동체의 기초」, 『한국정치연구』 24집 1호.
- 송치욱(2016), 「유학의 하학전통과 남명의 하학론」, 『남명학연구』 49집.
- 아감벤, 조르조(2016), 『왕국과 영광』, 서울: 새물결.
- 아감벤, 조르조, 알랭 바디우, 다니엘 벤사이드, 웬디 브라운, 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 크리스틴 로스, 슬라보예 지젝(김상운, 양창렬, 홍철기 옮김)(2010), 『민주주의는 죽었는가?-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서울: 난장.
- 아렌트, 한나(이진우, 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 안호용(2012), 「조선시대 가족구조 변동의 기준과 가족사의 시대구분」, 『한국사회

』 13집 2호: 39-81.

엄연석(2012), 「남명의 『학기유편』에서 자연과 도덕의 일관성 문제」, 『남명학』 17집.

윤재석(2001), 「중국 고대가족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중국사연구』 제13집.

윤호진(2006), 『남명의 인간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윤호진(2012), 「남명의 생애와 발자취에 대한 연구의 회고와 전망」, 『남명학연구』 35집: 27-59.

이상필(2007). 『남명의 삶과 그 자취1』. 서울: 경인문화사.

이성무(2001), 「시들지 않는 사상의 꽃 ‘퇴계와 남명」, 『주간동아』 272호.

이이효재(2003), 『조선조사회의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문화』, 서울: 한울.

이재덕 외(2008), 「생활동반자'...우리도 가족입니다」, 『경향신문』 22518호 (2018년 1월 3일).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조식(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2003), 『학기유편, 사람의 길 배움의 길』, 서울: 한길사.

최인호(2001). 「남명 조식의 현실인식과 경제사상」, 『유학연구』 11집.

최재석(1993), 「조선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21.

최재석(1993), 「조선중기 가족·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21집.

최흥기(2006), 『한국 가족 및 친족제도의 이해: 전통과 현대의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홍기빈(2001),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서울: 책세상; Habermas 앞의 책.

Habermas, Jürgen(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The MIT Press.

Lambert, Arnaud F.(2015). Anthrop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Murdock, George P.(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acmillan Company.

Sussman, Marvin B. and Suzanne K. Steinmetz (1987),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Nammyong's notion of family and the aporia of publicity

Park, Choong-hwan

This article is a rudimentary study of a great Neo-Confucian scholar, Nammyong Jo Shik (南冥 曹植, 1501-1572) in the mid-Choson Dynasty, focusing on his notion of family and its implications for his socio-political thoughts. Nammyong's socio-political thoughts converge on a Neo-Confucian concept, 'self-cultivation and ruling people'(修己治人). This research first captures Nammyong's notion of family in the social-historical context of the mid-Choson Dynasty, and then relates it with his socio-political thoughts in terms of the aporia of family and publicity to find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Nammyong's thoughts in the modern soc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Nammyong's notion of family registers an obvious duality as a result of the social-historical context of his age in which the cultural legacy of the bilateral extended family in the previous Goryeo Dynasty was complexly mixed with the new culture of the Neo-Confucian patriarchal family in the mid-Choson Dynasty. Secondly, from Nammyong's socio-political thoughts is induced a self-family-state continuum, based on which one may imagine 'holistic publicity' where the aporia of family and publicity

is to be logically resolved. Finally, despite the difficulty of applying Nammyong's socio-political thoughts in the reality of actual politics due to his overemphasis on the realm of self-cultivation and his theoretical ignorance of the issue of family, it may provide a useful intellectual window for envisioning a better society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rticle ends up with a suggestion that we need further systematic comparative studies of Nammyong's political thoughts and Western political theories, focusing on the issue of family and publicity.

Keywords

Nammyong, family, self-cultivation and ruling people, self-family-state continuum, publicity, aporia

